

서 소련의 科學政策의 樹立은 集權化된 中央機構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科學技術政策의 樹立은 하나의 機關이나 委員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國防省(DOD), 交通部(DOT), 保健教育福祉省(HEW), 科學技術政策廳(OSTP) 등 여러 政府部處와 議會, 그리고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SA 등 任務指向의인 여러 機關에 그 政策樹立의 權限이 分權化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에서 보는 것과 같은 科學計劃이나 그 一部로서의 科學研究計劃 같은 것이 公式의으로 樹立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公式化된 科學計劃이 없다고 하여 진공상태에서 科學政策이 樹立되고 執行되는 것이 아니라 指導의인 科學者, 政策決定者 및 政府의 諮問機關의 長들 間의 非公式의 關係에 의한 調整과 適應, 國家科學院(National Academy of Science), 科學委員會(Committee on Science)의 分野別 審議와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 의하여 遂行되는 研究資金 配定에 대한 年度別 調査分析, 그리고 聯邦豫算局(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하여 遂行되는 週期別審議 등에 의하여 科學政策이 樹立되고 研究分野의 優先順位가 決定되는 것이다.

소련과 美國이 이와 같이 公式化된 科學計劃과 科學研究計劃을 갖느냐 또는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 各國의 政治理念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또한 그 各各의 社會를 支配하는 政治 및 社會文化에 의해서도 크게 支配를 받고 있는 것이다.

結論의으로 볼 때 科學의 發展은 다시 技術의 發展을 促進하고, 이러한 科學技術의 發展은 한 社會의 構成員, 政策決定者, 政策프로그램, 政策形成시스템의 記憶裝置, 政策理論, 政策形成의 制度 등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를 通하여 政策形成 그 自體에까지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들 影響들 가운데 制度의 影響은 政策形成의 樣態까지를 바꾸는 根本的인 影響인 경우가 많으나, 다른 것들은 주어진 根本的인 政策形成 樣態의 限界 內에서 政策

形成의 內容이나 方向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科學史와 韓國史

인하대 한영국

주어진 主題에 대한 理論的인 論議는 피하기로 하겠다. 그것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관계 論著들에서 이미 詳論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 이 발표를 強勸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했던대로, 한국사를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과학사학계에 바라고 싶은 바만을 한 두가지 말하는 데서 그치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우리 국사학계가 최근 10여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사의 연구 업적을 수용하는 데 너무나 게으르고 소홀하지 않았나 自省되는 점이다. 우리의 역사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理解·敘述하게 하는 연구들이 과학기술사 분야에서 이룩되어 왔는데도, 그것을 국사 개설서나 교과서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國史編纂委員會 科學史學者를 한두분 도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여겨지고, 또 그것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여 가는 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한국근대사 연구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안다. 따라서 두 學界의 공동연구는 한국근대사의 理解를 한층 참신하고도 심화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科學史學徒가 많지 않은 오늘날의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韓國史研究協議會에는 한국과학사학회가 마땅히 참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 한국과학사학계에 바라고 싶은 것을 말하겠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한 욕구를 말하는 데 불과한 것이 되지만, 우선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氣候史와 農業技術史에 대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氣候史의 경우, 몇편의 논문을 보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농업사에 관한 理解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 관계 국사학도로 하여금 갖가지 推論을 빚게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르기는 해도, 우리나라 기후는 해마다 旱災와 함께 水災를 겪게 할 정도로 벼농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4세기경부터 우리나라의 농사는 벼농사를 主宗으로 轉變시켜 온 것으로 나타난다. 무슨 까닭일까? 中國 江南의 農法이 傳來된 데서만 이루어진 변화일까? 氣候史의 도움 없이는 분명히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그리고 農業技術의 경우에도 몇가지 著書까지 나와 있기는 해도, 지금까지의 연구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面面을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4~15세기에 西海岸의 干拓事業이 많이 수행된 것으로 擧論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그 기술에 대한 理解 없이는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학사가 과학사로서의 목표와 함께 한국사로서의 목표도 아울러 지니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韓國社會가 農業社會로 일관하여 온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속히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아닌가 믿는다.

이어서 한가지 添言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地域的 特性이나 地域間의 差異에 留意하여야 되리라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生活舞臺가 협소하기는 했어도, 지역에 따라 그 나뭇의 生活文化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懸隔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一隅에서 시작된 移秧法이 2世紀에 걸쳐서 北上, 普及되어 간 것도 그 한가지 예이지만, 좀 극단적인 것으로는 소위 頭無岳의 造船術, 즉 15·16 세기에 경상도와 전라도 海岸으로 不法 移住하여 간 濟州島民들의 특유했던 造船術을 들어볼 수 있겠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文獻에 나타나는 바로는 당시 일반적인 造船術과는 크게 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頭無岳이나 濟州島民들의 특이했던 處地와 生態에서 이루어진 그들 나뭇의 造船術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